



성과 친해지기 주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성과 친해지기 주간



비전있는 여성 제/안
또하나 여/남 공존예감
서림대 15대 총여학생회



표지 소개

작품명 : 생명을 생산하는
우리는 여자거늘

작가 : 김인순

이 작품의 중앙에 나무 뿌리는 아이를 잉태한 여성의 자궁을 상징한다. 그 주변으로서는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하하 -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98년 9월 1일 서울 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는 시립대 내에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일어났을 시에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기구입니다. 99년도에는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세칙을 마련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두운 - 여학생 상담실도 기지!!!

시립대학교 인문학관 1층에는 여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늦은 5시까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희숙 선생님이 상담실에 나오십니다. 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세요? 고민거리가 있는데 마땅히 얘기 할 만한 곳이 없나요? 여학생 상담실로 찾아가 보세요. 여성 문제와 관련된 책도 빌릴 수 있고요,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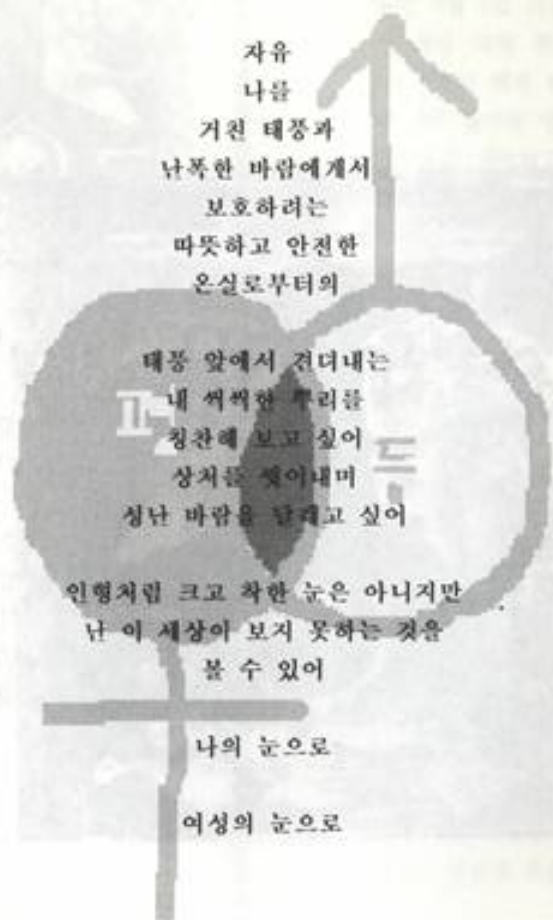
비전있는 여성 제/안
여/남 공존예감
15대 총여학생회

성과 친해지기 주간



비전있는 여성 제/안
또하나 여/남 공존예감
15대 총여학생회

여는 글



글 담긴 순서

여는 글 01

02 글 담긴 순서

행사소개

*성과 친해지기 조건*을 소개합니다 03

04 오늘 나는 진짜 성교육을 받으려 한다

05 우리 5월 동안 피아지? 06

▶ 나의 분노에 고통을 찾아라

여학생 음연석 준비했요- 07

▶ 오늘은 ~ 하는 날 : 마르 캄캄언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공간 : 바둑그림 그리기 08

▶ 의명제, 어떤 영문을 의뢰할까

못 다한 이야기를 여객에 : 거북 대작표본 09

10 Check 1. 여성의 권리 장전

생각해 볼 이야기

11 나는 나야! 누구도 날 방해할 수 없어!

피업은 내 몸에 대한 나의 권력이!

12 나는 이제 속옷을 벗어버리고 싶다

생각에 관한 나의 짧은 생각

13 어머,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 자외

Check 2 공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14 적표집을 내기까지



“성과 친해지기 주간”을 소개합니다!!

“왜 총여는 맨날 성과 얘기해요? 여성 취업 고민도 좀 해줘요!”

많은 여학생들이 그리고 또 많은 남학생들이 총여더러 이제는 “성”이 아닌 다른 얘기도 좀 하라고 건의를 해 온다. 하지만 총여는 이번에도 또 성을 주제로 한 “성과 친해지기 주간”이라는 행사를 벌이려고 한다. 도대체 성과 뭐길래 총여는 맨날 성과만 얘기하는 것일까? 또 “성과 친해지기 주간”은 뭘 하고 왜 하는 걸까?

0. 성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자. IMF가 시작되면서 “시집이나 가서 예나 봐”라는 말과 함께 정리하고 0순위이고 남아 있다해도 눈치 보여 생리 휴가는커녕 임신, 출산 휴가도 제대로 못 챙기는 여자들, 집에선 오빠, 남동생 밥상 차리고 MT 가서는 남학생들 밥상 차리는 여학생, 교수님이나 아저씨들한테 혼날까봐 몰래 숨어서 달배 피우는 여학생... 들여다보면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에도 “성”이라는 주제가 맨날처럼 깔려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여자는 어쩌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형성된 권력 관계가 대부분의 성차별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결국 “성”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른 얘기들도 시작하기 어렵지 않을까?

1. 있다, 없다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보면 여자 주인공 중 한 명이 자신의 성기 모양을 보려다가 다치는 장면이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실시한 성의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자신의 성기의 구조와 모양을 알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여학생은 44.2%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3.2%만이 잘 그릴 수 있다고 대답한 반면 남학생은 12.3%만이 잘 모르겠다, 20.2%가 잘 그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여성의 성기가 남성의 성기보다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성기가 구석에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몸의 일부인 성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의 성격 문제일 뿐일까? 그렇게 단순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는 각각 다른 말을 듣게 된다. 남자 아이의 성기는 자랑스럽고 귀엽고 건장함의 상징이며 집안 어른들은 저마다 사내 아이의 “고추”를 구경하려 든다. 반면에 여아의 성기는 보이면 창피한 것, 다리를 오므려 가려야 하는 것, 만지면 안 되는 것이며 여아의 성기는 “고추”가 없는 것, 무언가 모자란 것이다. 그 때부터 여성은 자신의 성기, 자신의 몸과 멀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여성임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성기에 대한 거부감도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2. 성과 친해지기

여성인 자신의 성과 친하지 않다는 것은 비단 성기에 대해 모르는 것만은 아니다. “성”은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자신의 특성이나 성격, 행동 양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성과 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여성으로서의 나”가 어떤 모습인지, 어느 위치인지, 얼마나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여성”임이 자랑스럽고 즐겁게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15대 총여학생회는 “성과 친해지기 주간”을 마련하였고 올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내 몸 바로 알기”이다. 내 몸을 바로 안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몸의 주인이며 외부의 어떤 시각과 기준, 요구와 제약에도 내 몸에 대한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리고 나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 특히 이성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우 성과 친해지기 주간 :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나는 오늘 진짜 성교육을 받으러 간다

- 내 몸 바로 알기

0. 정자, 난자 얘기는 정말 지겨워~

여섯 살을 전후로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묻는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하지만 그 아이가 듣는 대답이란 것은 "그 건 말이지, 예..." 아니면 "아빠 몸 속에 애기씨랑, 엄마 몸 속에 있는 거랑 만나서..." 이런 종류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만나란 말이지! 이런 교육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알게 된다. 성관계를 가져야 임신이 하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2차 성징이라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는 것이 성교육의 끝인가? 그렇다면 굳이 알진 다 아는 대학생에게 성교육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이것이 성교육이다

하나, 내 몸 바로 알기 "내 몸 바로 알기"는 이번 행사의 화두이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굳게 지켜내는 것, 어떤 성적요구와 간섭에도 의사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성교육을 통해서 좀 더 용기를 내보는 것이 어떨까? 당당한 목소리로 "싫다"나 "좋다"를 외쳐보는 것이 어떨까?

둘, 공문과 배려 여자들은 대개 수업 시간에 몰래 읽는 로맨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낭만적"이라고 하는 스토리 속에서 사랑과 성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많은 남자들은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꿈꾸는 사랑이나 성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것이나 또 기대되는 행동 양상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두고 있는 대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씩씩함이나 추진력, 리더십 등을 배우며 성취를 통해 칭찬을 받는다면 여자아이들은 착하고 안전하라고 배우고 남을 돕거나 타인의 의견에 잘 따르는 행동에 대해 칭찬을 받는다.)



게다가 중학교부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성의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생활 할 만한 기회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여성과 남성이 각각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의 정서를 남성은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은 여성의 시각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한다면 같이 살아가기가 더 즐겁겠지?

2. 강연 소개

강사 여남영씨는... 64년 출생. 이화여대 영어 교육과 졸업. 대학원 여성학과 수료. 방송 작가로 활동, 현재 자유기고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 교육부분 자문위원, 페미니스트 저널 "IF"에 칼럼 기고.

특강 개요

1. 여성의 몸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접근 - 생식기의 구조, 처녀성, 순결에 대한 강조의 의미, 순결 이데올로기의 변형 및 온존
2. 기호 VS 상징 : 가부장적 함의
여성의 몸 VS 악기 : 남성 VS 연주자, 여자는 차와 같다?
3. 몸과 정신, 성과 사랑, 여자와 남자
남자의 논리와 그 의미, 콜리지 효과, 실험 심리학의 성과들
4. 성추행, 강간의 실제
데이트 강간, 성희롱, 스토킹 - 정확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낭만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5. 주체적인 성과 사랑
느낌과 책임에 대한 통찰, 독립적인 여성이란?
6. 남자와 함께 살기
남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나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유머 감각을 가지기



우리 5일 동안 뭐하지?

나의 분노에 깃발을 꽂아라!! : 깃발꽂기

▷ 준비한 사람들 :

만이(화공97)를 비롯한 지피기들

우리 학교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나 깃발을 꽂아 들어내자.

남학생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의 성차별적인 발언이 존재하는 교실, 여학생이 들어가면 눈치가 보이는 흡연실, 공대여자도 여자냐? 하는 공대가 모여있는 전자정보관 등등, 자~ 학내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그곳에 과감히 깃발을 꽂아보자.

▷ 장소 : 학생회관

▷ 기간 : 성과 친해지기 주간

▷ 방법 : 학교 모형 위에 학내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깃발을 꽂고 그 이유도 간단히 써주세요.

여학생 흡연서 준비했음~

준비한 사람들 :

힐링이(경제 97)를 비롯한 지피기들

장소 : 학관 앞

"어디 여자가 담배를 피워!!! 이***아! 당장 끄지 못해!"

"어휴 재 줌봐, 짝수가 노란거 아냐!"

"아무리 담배를 피더라도 몰래 필 것이지 대놓고 피냐 간쟁이가 부었어!!"

난 여자야 하지만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야. 나의 욕구! 하고 싶은 것! 피우고 싶은 것을 왜 못하게 하지.....

담배도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커피를 마시듯 담배를 피고 싶으면 피는 것이다. 같은 기호식품이면서 커피는 되고 담배는 안 된다니..... 또한 남학생은 피워도 되고 여학생은 피면 안되냐? 남성은 되고 여성은 안 된다니..... 여성도 같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들은 사회에서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에 여성들을 가두는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왜 하면 안되고 '여성은' 이런 것으로 여성을 규정하여 제재하는 것일까? 흡연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에 의해 담배를 피우고 싶어한다. 여성 흡연자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 흡연자들이 담배를 입에 물려는 시늉만 해도 주위 사람들은 그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흡연자들은 실내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피우지 못한다. 왜 자연스럽게 보아주질 않는 거지? 여성들이 커피를 마시듯 담배를 피우더라도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길 원한다. 실내에서건 실외에서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피고 있는 여성들은 이들의 욕구에 의해 행동하는 것뿐이다. 이들의 욕구를 인정해 주고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보아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여학생 흡연석을 임시로나마 상징적으로 설치하였다.

준비한 사람들 : 고니(전자전기 98)와 지피기들

오늘은 ~ 하는 날 : 하루 캠페인

성과 친해지기 주관을 맞이해서 총여학생회에서 하루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안 하나, 칭찬하기(5월 17일 월요일)

태어날 때부터 그랬듯이, "이 놈이 고추였으면..."이라는 열등감으로 시작된 여성들의 일생... 하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기쁜 일이어야죠. 난 여성임이 이럴 때 자랑스럽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은 요기조기 있는 곳곳의 대저보에 나나 내 친구의 칭찬을 해봅시다. 혹시 내 칭찬은 없수?

제안 두움, 더치페이(5월 18일 화요일)

언제부터인지 그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데이트를 할 때나 그 외 여타의 돈 쓸 일이 생기면 대다수의 경우 남성들이 내었던 것 같군요. 어차피 다같은 학생이기는 마찬가지인데, 남성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행위들은 어쩌면 "남성들이 처자식을 먹여살리는" 그러한 가부장적 사회의 답습이 아닐런지요.

제안 세엿, 내 짐은 내가 들기(5월 20일 목요일)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남성들은 굳이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고, 더군다나 힘들어도 힘겨운 기색을 하기도 힘들죠? 자기 짐은 자기가 들시다. 어차피 힘들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일은 ♪ 스스로 하자~ 알아서 ♪ 척척척 스스로 ♪ 합시다~ ♪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공간 : 바닥 그림 그리기**

준비한 사람들 :
선(환공 97)하고 지피기들

날 그려봐!!!

그림을 그리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구?

이제 우리가 여성임을 한 번 소리내어 말해 보자는 거지 뭐. 속으로 속으로만 파고들지 말고 크게 말해 보자.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이다. 그 하나의 방법이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 보자.

우리 대학을 바라봅시다. 아주 아주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컵차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친구끼리 모여 토론할 장소가 있나요? 현 시립대의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특히 그 중에서도 말이죠. 여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도 남녀간의 그 애매하고도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흡연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흡연실은 담배를 피우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비흡연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실례이겠지요.) 그러나 여학생들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있겠지요. 간혹)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거나 앓을까요?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자가 담배를 피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래서 이 흡연실도 어떻게 보면 남학생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봅시다.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신나게 그리고 멋있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공간, 그 장소에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해 봅시다. 거기에서만큼은 우리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행동해 보자구요. 아주 특별한 일일꺼예요..

준비한 사람들 :
썹썹(환원97)이와 지피기들

**어떤 영혼을 위로할까 :
위령제**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머느리 귀신,

성적 괴롭힘을 당해 목매달아 죽은 귀신,

동성애자라고 세상에서 소외되어 죽은 귀신,

애 낳다가 죽은 귀신,

명문대를 나왔어도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커피 심부름만 하다 자기 능력 발휘도 못하고 죽은 귀신,

다이어트 하다가 죽은 귀신,

아들 못 낳아 평생을 배만 부르다가 죽은 귀신,

정조를 못 지켰다고 자살을 강요당해 죽은 귀신.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오소서!

여성이기에 당해 왔던 많은 억압들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한을 풀고

오늘 이후로 다시는 당신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여성들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이 사라지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희생당한 영혼을 위한 위령제가 "성과 친해지기" 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회관 앞과 정문 앞에 설치될 것입니다.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간 : 성과 친해지기 주간 내내

장소 : 학생회관 앞과 정문 앞

다 못한 이야기를 여기에 : 거리 대자보전

준비한 사람들 : 인디(철학 98) 백설(도시사회 99) 브이(도시사회복지 99) 우종(경영 94) 승주(환원 98)

각기 다른 과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몇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 비슷하게 수다 떨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다. 그 고민들을 시립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대자보를 통해 "성"을 화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 중에는 O양에게 쓰는 편지도 있고,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얘기도 있다. 남녀차별 금지법이나 직장내 성희롱 방지법과 관련해서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생각도 했다. 또 여학생 화장실 게시판에 어떤 얘기들이 쓰여져 있는지 시립대 여학생들의 일상과 생각들을 엿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연히 학관주변을 걷다가 줄지어서 춤추는 대자보들을 발견하면 한번쯤 시선을 글 위에 꽂아 보자. 기대하지 않은 편찮은 얘기들을 발견하는 것이 대자보의 매력 아닐까?

Check1. 여성의 성적 권리 장전¹⁾

1. 여성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 나는 내가 선택한 모든 사람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지배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상대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 ▶ 나는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을 때 이를 거부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관계를 천천히 시작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는 당신과 더 친밀해지기에 앞서 당신을 더 잘 알고 싶다"고 말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 자신일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의 감정이 변했을 때 관계를 변화시킬 권리가 있다. 즉 나는 "전에는 우리가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제는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신체적인 접촉을 바라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섹스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도 유혹적으로 옷을 입거나 행동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싫다"고 말 할 권리가 있다.

2. 여성은 어떤 성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 나는 나 자신의 몸을 소유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 자신의 감정과 믿음, 의견,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 나는 성적 접촉에 대해 나 자신의 가치 판단들을 믿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 자신의 성적 한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싫다"고 말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좋다"고 말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성적 즐거움을 경험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성적인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성적 관계를 먼저 시작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애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 자신의 성적 선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를 존중, 이해하고 기꺼이 나와 의사 소통할 파트너를 가질 권리가 있다.
- ▶ 나는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정확한 성적 정보를 수용 할 권리가 있다.

1) "섹슈얼리티 강의"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나? 나는 나야.. 누구도 날 방해할 순 없어.

나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개는 날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나야. 어느 누구도 날 소유할 수 없어. 아무리 남자친구라 해도 날 가질 수는 없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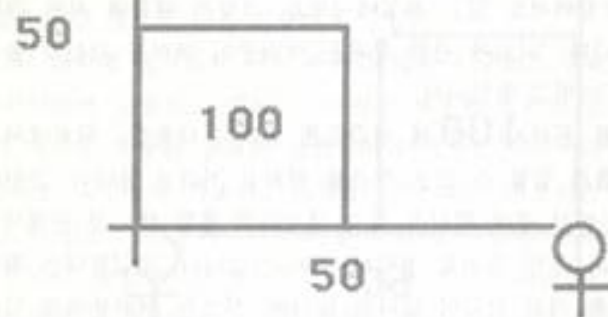
말하기 힘 드나구? 아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잠깐만 담배 한 대만 피고...

나는 개가 정말 좋아. 따뜻했거든. 그리고 어느 사람과 친밀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좋아. 같이 밥 먹고, 생각을 공유하고.. 나는 그 이상을 바라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개가 나와 섹스를 하자고 했어. 나를 사랑한대. 섹스가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나도 물론 섹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야. 그치만 지금은 싫어. 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야. 단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내 몸이 원하지를 않거든. 하지만 개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나의 거절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 개의 뒤통수가 슬퍼 보였어. 그래서 한 번만 이번 한 번 만이라도 생각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단아한 집에 정갈한 음식이 나오는 집에 숙소를 정하고 함께 바다를 보러 갔어.

유치하니? 소설 쓰는 것 같애? 웃지마. 나는 심각해. 개가 날 꼭 안아줬어. 그리고는 어서 날 가지고 싶어. 그럼 내가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냐? 행복하다고 느꼈어. 그리고 조금 뒤 방으로 들어왔어. 조용하게 키스를 해 주더라. 나 사실 무서웠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다는 느낌으로 섹스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 너무 혼란스러웠어.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개는 점점 더 고조되더라. 너무 아팠어. 그만두고 싶었어. 하지만 개에게는 나의 아픔 따위는 보이지 않나 봐. 순간 나의 존재감이 의심스러웠어. 나는 누구야? 왜 내 몸인데 내 몸을 개에게 맡기고 있어야 되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 며칠 후 만났는데 많이 황당해 하더라구. 자기를 믿지 못하냐구. 그래서 헤어졌어. 나의 느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 나의 권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싫어. 나 앞으로는 당당하게 말할 거야. 싫으면 싫다고 말할 거야. 나의 주인은 나니까. 내 몸 또한 내 꺼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할래.

그냥 한 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 봤습니다. 이런 일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친한 선배나 친구가 그냥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껴안는 경우도 많죠. 그냥 친하니까. 불쾌하다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세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애인을 만날 때, 키스하거나 섹스할 때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사람 있나요? 분위기 깨게 어떻게 그런 것을 물어보나요? 서로의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을 때 정말 말이 필요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건 나만의 오해일 수가 있대구요. 상대방의 몸에 대한 존중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 지금 너와 키스하고 싶어'라고요. 그리고 대답은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응, 나도 너와 키스하고 싶어.' '아니, 나 지금 이빨을 안 닦아서 안 돼'

한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자신의 욕구를 누그러뜨려야겠지요. 만일 강제로 한다면 그건 성폭력이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한 번 연습해 봅시다.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 나의 감정에 솔직해 지는 법을 말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니자구요.



피임은 내 몸에 대한 나의 권리야!

여성문화연구 동아리 "MUST"
99학번 백설공주(백만인이 싫어하는 공포의 주동아리...)

자기의 소변방울이 하얀 테스트판에 스며들어가는 그 순간의 초조함을 너는 알아? 알 수나 있어? 섹스할 때도 거기에만 집중하지 못해. 끊임없이 신경써야 하지. 혹시나 새어나올까봐... 보통때도 생리일만 학수고대하게 되는거야. 다른일? 신경 못 써. 낙태? 못할 것이야. 생명 어쩌고는 빼놓더라도, 일단 내 몸이 너무 상하게 돼. 그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불공평해! 어떤 짓을 하건 임신은 여자가 하고, 그럼엔 몸이 상하는 것도 여자잖아. 남자들은 하구 나면 끝인데, 왜 여자들은 그 이후까지 계속 걱정을 해야하지? 머시라? 그럼 모두 손질을 지키면 되지 않나? 바보냐? 난 건강한 젊은 여자란 말야! 난 내 성욕을 해소할 권리가 있어!

피임의 필요성에 대해 여기서 구구절절히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올리려고 합니다. "피임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섹스를 원하시나요? 제 생각으론 남녀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섹스를 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임신이란 것에 확신을 갖고 대처하지 못할 때 성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적극적이지 못한' 위치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피임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 더더욱, 섹스는 여러분에게 있어 즐거운 것이 아닌 신경쓰이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이와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피임을 요구할 권리인데요. 섹스가 양성의 결합인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예비인 피임에 있어서도 책임은 양성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선 임신의 일차적 부담자인 여성에게 피임의 책임을 몽땅 물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다가 여성이 성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회적 통념까지 가세해서 '여성'이 자기 몸 지배하기'를 여러모로 방해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성을 즐기고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섹스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피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해 집시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당장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만 마칩니다.

나는 이제 속옷을 벗어버리고 싶다.

썸백 (원원 97)

어렸을 적부터 나는 유난히 속옷 입기를 싫어했어. 기본적인 팬티마저 갑갑하고 귀찮아서 입지 않았지.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벌거벗은 모습이 많아. 브래지어를 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으려는 나와 어떻게든 입히려는 엄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고 억지로 입고 간 날은 하루가 불안하고 갑갑했어.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브래지어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속옷을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항상 꼭 조이는 거들을 입고 교복치마 속에서 살짝 보이는 속치마의 레이스가 좋아서 더운 여름에도 속치마를 입고 다녔어. 이유는 매일 앉아 있으면 허리나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해서 거들을 입으면 켄달을까라는 생각에서였고 속치마는 그 레이스가 너무 이뻐서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속옷을 입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하고 이상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여자를 보면 혐오감까지 들 정도로 나는 길들여져 있었지.

그러나 대학에 들어와서 나는 주위의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을 보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속옷을 챙겨서 입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성은 속옷을 꼼꼼히 챙겨입어야 정숙한 여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더운 여름에도 속치마에 거들에... 더위를 많이 타는 나로서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 그런데 나는 왜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속옷을 꼼꼼히 챙겨 입는 것일까? 숨도 못 쉴 정도로 나의 몸을 조이고 혹사시키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동동해도 가슴이 쳐져도 나는 나대로의 내가 좋은데 말이야. 브래지어를 사려가도 '손님은 가슴이 작으니까 와이어가 있고 한 치수 더 큰 브래지어를 하세요'라고 권하고 거들을 사려 가도 '손님은 허벅지가 굵으니까 스판으로 된 아주 꼭 조여주는 거들을 입으세요'라고 이야기해. 나는 속스럽고 민망해서 그 브래지어와 거들을 사지. 그리고 꼭 집에 와서 후회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내 몸을 부끄러워야 하는 거지? 나는 나일 뿐인데 말이야. 이제 나는 속옷을 벗어버리고 싶어.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야. 지금도 내 치수보다 큰 브래지어가 귀찮아. 자꾸 올라가거든. 그리고 생리 중인 나의 배를 꼭 조이고 있는 거들을 벗어버리고 싶어. 왜냐구? 생리통이 더 심해지거든. 세상이 비라는 미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몸을 꼭 조이고 부풀리고 해서 나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을꺼야. 이제부터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니까.

생리에 관한 나의 짧은 생각

혈령이(경제 97)

선배언니에게서 들은 외국문화 중에서 감동한 것 하나.
한 여학생이 생리가 안 와서 걱정을 하니까 남학생이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충고하였다. 음침한 미소나 신비화가 없이 건강문제의 하나로만 받아들여 주는 문화.

지금 생리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부럽게 다가온다. 지난 달 생리를 거르고 이번 달에 한꺼번에 두 달치 생리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기간동안 생리통이란.....

초등학교 때 생리를 처음 시작한 때가 기억난다. 팬티에 묻은 피에 놀라 엄마에게 말하니 여자는 누구나 다 하는 생리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내가 처신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앞으로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 의자에 앉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생리 기간 중에는 자신의 옷이나 자신이 앉은자리에 피가 묻지 않게 조심하고 냄새나지 않게 몸을 청결히 해야 한다. 또 하나 남에게 자신이 생리중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철저히 숨겨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 말들이 어린 마음에는 성! 생식기에 관련된 행사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될 비밀로 다가왔다. 왜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생리'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얘기하기 쑥스러워 철저히 숨겨야 하는 것으로 다가와야만 하나? 남성과는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여성에게 생리는 여성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여성의 몸이 정상적으로 발육되고 있으며 현재 심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또한 생리를 하면서 겪는 심신상의 변화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대인 관계 맺기가 힘이 든다든지, 등. 남성과 여성의 신체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생리(월경)를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달마다 이런 날이 찾아오는 여성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 자연스럽게 나의 생리에 대해, 생리할 때의 나의 상태에 대해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꺼리게 되거나 피함으로써 생기는 오해와 불이익이 다반사다. 생리에 의해 생기는 생리통 같은 경우 원래 경련성 통증으로, 더러 설사나 구토를 수반하기도 한다. 우리 몸의 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궁 근육이 수축되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리통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병원을 찾기보다는 참아 넘기는 경우

가 많다. 이것 또한 생리를 부끄러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리통 외에도 생리 중에 여성들의 심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리대(패드)를 들 수 있다. 생리 기간 중에 여성들은 생리대(패드)를 착용하거나 삽입식 생리대(탐폰)를 착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여성들은 대부분이 패드를 착용한다. 하지만 이 세 국가를 제외한 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혈이 셀 염려가 없고 활동에도 편리한 삽입식 생리대를 착용한다. 한국, 일본, 중국은 처녀막을 중시하는,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문화가 깔려 있는 나라이다. 이 세나라는 고령적으로 여성의 편의보다는 순결·처녀막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은 사회이다. 그러므로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처녀막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지금 당신은 생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하십니까? 자신이 생리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해봅시다. 당당해봅시다. 주위 사람들, 남동생, 오빠, 남자친구에게 정확히 자신의 상태에 말해봅시다.

내 몸 사랑하기 -- 여성의 자위

어머...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 이 (화공, 97)

특히 여성의 마스터베이션은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 마스터베이션은 자연스러운 성행위의 하나. 죄책감 따위는
가질 필요없다 ★

마스터베이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여 오르가즘을
얻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행위가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성과학자들조차 여성에게는 성욕이 없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특히
여성의 마스터베이션은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성이란 것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묘사하여 연구한 결과,
마스터베이션은 인간의 성행위의 하나이고 결코 몸에 나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마스터베이션을 가능하게
하는데 손가락이나 손의 운동과 함께 상상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남성으로부터 애무를 받고 있든지,
과거의 전율이 넘치는 섹스, 또는 영화 속의 자극적인 섹스를 머릿속에 떠올리며서 안것 대단한 자세로 자신을
사랑해 버리자. 상상은 어디까지나 현실이 아니므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것 없다.... - 여성을 위한 의학책 중
에서 -

내가 대학교 일학년 때 일인가... 한창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나는 마치 이제 막 발문을 트인 아이처럼 궁금한 것이 많았다. 어느 날
책을 보다가 '마스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읽었는데, 난 이게 무슨 '파운
데이션'과 같은 화장품 종류의 하나인가라는 생각에, 주변에 있는 선배들
에게 물었다. "선배, 마스터베이션이 뭐야?" 받은 웃느라고 뒤집어 껴고,
받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냐니깐?" "자위야." "자위가 뭔데?" 연
이어지는 내 질문에 선배들은 당황해 했고, 몇몇은 그 자리를 뜨기까지
했다. 결국엔 직접 찾아봐라는 말 이외에는 자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후 나는 여러 경위를 통하여 결국 자위가 무엇인지 알았
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할 정도로 부끄럽거나 금기시 되는 이야기인가라
는 의문을 던진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위라는 단어 자체가 사
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암묵적 동의를 얻고 있던 사
랑에서 더구나 여자가 물어 본 것에 대해 선배들이 당황한 것 같다.
왜 '자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웬지 이야기하기
껄끄러운 - 우리의 일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
인가.

흔히 자위라고 하면 남자들의 자위를 생각하게 된다. 그 만큼 남자들의
자위는 여자들의 자위와 비해서는 훨씬 자연스런 이야기로 다가온다. 설
령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행동을 통해 자위를 하는지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남자들이 자신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발기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
고, 사정하고 나서 어떤 기분인지는 잘 몰라도 예상되는 남자들의 표정
이 있다. 하지만 남자들의 자위와 다르게 여성의 자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자료도 그렇지만, 여성 스스로 자위에 대한 대화는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것은 그 만큼 여성의 성에 대해
터부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자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고 흔히 파트너 없는 성관계(?)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마치 반드시 타인
과 성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듯이 반드시 자위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성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자위라면 구태여 남녀사이의 성관계라는 도식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몸 주인 되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단지
"내 몸은 내 꺼지"라는 형식적인 말뿐만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 주인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많은 기존의
사회 통념들이 여성들의 입장이 아닌 남성들의 입장 - 포르노가 남성들
의 시각 혹은 입장에서 찍히지며, 그것이 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만들어
지듯이 - 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은 여성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
자의든, 타의든 - 미치게 된다.

나의 작은 생각으로는 자신의 몸 주인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
(body)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몸
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 방법 중에 가
장 간편한 방법은 아마도 자위가 아닐까? 실제로 섹스는 상대방이 있어
야 가능한 것에 비해 자위는 혼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얼마
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자, 이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 솔직해지자... 그야
말로 대단한 자세로 자신을 사랑해 버리자. 그리고 그 동안 사회의 편견
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들의 자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Check.2 강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절대로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산부인과 진찰의 목적은

첫째,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성병이나 임신 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고소를 할 경우 이 진단서는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이다. 몸에 멍이 들거나 다른 상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2. 전문 상담 기관이나 여성 단체에 문의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76 - 5513 ~ 4	한국 여성의 전화 02)2269 - 2962
대구 여성회 053)421 - 6758	전북 여성의 전화 0652)83 - 9855
광주 여성의 전화 062)363 - 0485	YMCA 청소년 상담소 02)599 - 8460 ~ 1
마산 성폭력 상담소 0551)84 - 5400	한국여성민우회 02)737 - 5763

3. 고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간은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은 숨겨지게 되고 가해자의 범행도 벌을 받지 않아 결국 성폭력 범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경우, 가해자를 벌하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또한 그냥 주저앉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4. 고소 방법 및 절차

- ① 고소장을 작성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② 고소장을 사고 지역이나 가해자 주민등록 지역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낸다.
- ③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때 피해자 진술 조서와 가해자 조서, 대질 심문 등이 있다. 진술시에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꾸며서 얘기하지 말고 "기억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 ④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가해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시한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⑥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된다. 형사 재판이므로 필요시 증인으로 출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1심에 불복하면 판결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⑧ 형사 재판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가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 주소지의 법원이나 피해 사고지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한다. 이런 민사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편집후기

생각보다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데드 라인을 안 지킴엔 죽음이라며 몇 번 험박하고 내 원고 한 예닐곱 번 수정하고 남의 원고 두 세 번 전면 공사하고 몇 일 땀내고 몇 끼 굶으면 이 정도는 만든다. 필이다. ...

이 자료집을 많은 - 되도록 - 학생들이 재미있게 봐 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재미를 시작으로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얘기들로 남았으면 한다.

다행히도 마감일을 잘 지켜 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졸립다. 이제서야 글을 완성했다. 요번 성과 친해지기 주간 팀장인 인디에게 미안하군. 그래도 한 번에 통과해서 다행이다... 그럼 너무 졸려서 자야겠다. 졸린 와중에도 외칠 건 외쳐야지. 15대 동아리 파이팅!!!

----- 3주째 집에 못 들어가 제정신이 아닌 켄백...

인디아 수고하였다. 처음엔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다고 징징대더니 이렇게 맛있는 자료집을 완성하여 부렸구나. 이 자료집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과 친해지기가 부디 많은 학생들이 서로들 깨어가는 과정에 작은 몫이라도 차지하였으면...

푸헬헬~ 자료집이 나오는구나. 부디 많은 사람이 일도록 하소서. 하루 캠페인을 하루하루 열심히 실천해갑시다. 나도 모르는 세 날 캠페인만 맡았더군... 언젠가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고파라~ 그럼 이만~

성과 친해지기 주간이 시작된다. 그 기간에 이 자료집이 시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성에 대한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주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음... 벌써 편집후기라니..... 생리에 관한 나의 경험과 짧고 굵은 생각들, 여학생 흡연식에 관한 이야기들, 정말이지 뼈저리게 고민해서 써서, 정말로 내 자식같이 소중한 글들이다. 이번 글들을 통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들을 읽은 사람들 모두 고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게 힐링의 바람!!!